

교회소식

- < 담임목사 방송설교 >
- CBS TV(채널 68) 월 오후 2:00 ~ 2:30
 - 극동 방송(FM 93.3MHz) 수 오후 5:30 ~ 6:00
 - CTS TV방송설교(채널97-1) 목 오후 1:00 ~ 1:30
 - CBS 라디오(FM 91.7MHz) 금 오후 12:30 ~ 1:00



[알림]

* 코로나19 전염방지를 위한 교회생활안내

1. 3월 1일부터 15일까지 3주간, 주일 오전 2부, 3부 예배 이외의 모든 예배와 모임을 중단합니다.(청년회 및 주일학교 포함).
2. 새벽예배는 "개인 묵상집"(주보6~8면 참조)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각 처소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3. 주중에는 예배당 및 교회 시설과 카페를 개방하지 않습니다.
4. 교역자와 직원은 종전대로 업무를 하오니, 필요한 상담과 심방은 언제든지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교회생활지침은 주보 4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분들

▲월요당직 : 김현철 집사

담임목사 조상용	원로목사 김주원	시무장로 김덕현 배정만 홍순영 이원명 이대영
부목사 고윤철 오상욱 김종명		송경호 정기조 윤종명 황덕순 임현성
전도사 김명순 조정욱 전상순		김수중 임인성 전용주
교육전도사 정선교(고등) 지서광(중등) 현기훈(초등)	원로장로 이인창 편봉달 정태응 최영일 윤재룡	
	안성민(유년) 이정아(유치)	안철호
직원 박연희(사무) 김현철(관리)		
어린이집 주경애(원장) 김경희 박선정 권영은 김정은	은퇴장로 김영한 장순석 김기성 권소열 송은규	

교회주소 - 34532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748번길 40 (가양동) FAX 632-0281
 www.jungbu.or.kr / 사무실 622-9991,2 / 큰숲어린이집 622-9995 / 카페(필그림) 625-9991



우리의 비전

위대한 교회
영광스런 교회를
보게 하소서!

4대 사명

-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 가정을 치유하는 교회
- 성도를 제자삼는 교회
-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8대 사역

1. 예배 사역
2. 목장 사역
3. 가정 사역
4. 기도 사역
5. 제자 사역
6. 미래 사역
7. 복지 사역
8. 전도 사역

도심 속 하나님의 나라
세종중부교회
(담임목사 하우진)
2018. 7. 7 설립

세종시 보람동
금강베네치아 5층
010-7770-8291

주일예배

1부 / 오전 7:00 2부 / 오전 9:00 3부 / 오전 11:00 4부 / 오후 1:50

* 입례송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 신앙고백	사도신경
회중찬양	주 품에 /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참회기도	다같이
대표기도	송경호 장로(2부) / 정기조 장로(3부)
성경	막 1:29-31
설교	예수님의 기적(7) :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기적 조상용 담임목사
헌금	419장
광고	인도자
* 공동체고백	사명선언문
* 폐회송	우릴 사용하소서
축도	조상용 담임목사

*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안내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1부/오전10:00(본당)
2부/저녁7:30(중예배실)

목요일성기대회 저녁 8:00 (본당)

코로나19 전염방지를 위해
3월 1일 ~ 15일 까지 쉽니다

새벽기도회

새벽 5:00 (본당)

목요전도

오전 10:00 (소예배실)

- 각 처소에서 -

- 잠정 연기-

다음주 봉사안내

주일오전	1부	정기조 장로	안내위원	2,3부	2 여 전 도 회	
	2부			현금위원	2,3부	담 당 자
	3부			주보배부	2,3부	2 여 전 도 회
주일새벽	금 주	윤종명 장로	식당봉사	금 주		
	내 주			내 주		
주일오후	내 주	주차위원	주차위원	나승문 김상복 김중현 김태순 박노태 박대수 이길천 이종규 임춘수		
	수요일예배			1부	차량운행	2호/ 이본구 집사 010-8281-3779 3호/ 김동윤 집사 010-6804-5574 권소열 장로 010-8070-3533
	2부	4호/ 유창중 집사 010-6407-8515 5호/ 이울성 집사 010-9033-5338 6호/ 채기병 집사 010-5579-9103 임인성 장로 010-9577-9500				

예배시간 안내

주 일	1부 예배	오전 7:00	유아부	오전 11:00	수	1부 예배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9:00	유치부			2부 예배	저녁 7:30
	3부 예배	오전 11:00	유년부			목요일성기대회	저녁 8:00
	4부 예배	오후 1:50	초등부				
	베데스다	오전 9:00	중등부				
	오후예배	오후 4:00	고등부				오전 9:00
		청년회	오후 1:50	매일 새벽기도회	새벽 5:00		

기도 게시판

365일 릴레이 기도 담당

월 (2일)	김종명 최영희
화 (3일)	이연옥 박숙희 송정숙
수 (4일)	고윤설 조정옥 공중호 심윤중
목 (5일)	이영학 안중근 국은희
금 (6일)	임현성 오상옥
토 (7일)	황덕순 이은진b 이종옥 김미숙
주일 (8일)	유창웅 김정식 정영자 임영숙

※ 기도담당자는 하루 한 끼 금식하고 한 시간 이상 집중 기도해 주세요!

기도제목

1. 위대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게 하소서! (마 16:18)
2.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행 19:20)
3. 365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행 1:14)
4. 담임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요 17:22)
5. 도시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마 5:16)

중보기도사역

요일	기도 내용	담당	시간	장소
월	교회와 개인을 위해	한혜숙 권사	오전 11시	기도실
화	교회, 선교, 중보, 개인을 위해	이영숙 권사	오전 10~12시	기도실
수	나라와 민족, 교육 부서를 위해	심윤중 권사	오전 11~12시	기도실
목	성령의 능력과 치유, 회복을 위해	목요일성기대회	저녁 8시~10시	본당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이종옥 권사	밤 12시~4시	한나방
금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	이성희 권사	오후 2~3시	기도실
주일	목사님과 주일 예배를 위해	홍선덕 권사	오전 10~11시	기도실
119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119 문자	문자 전송 시	처소에서

사명선언문

대전중부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가정을 치유하며,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여, 사랑과 복음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위대하고 영광스런 주님의 교회가 실현되는 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게시판

주간 성경읽기

날짜	1일(주일)	2일(월)	3일(화)	4일(수)	5일(목)	6일(금)	7일(토)
성경	수9-11	수12-14	수15-17	수18-20	수21-삿1	삿2-4	삿5-7

♣ 꽃꽂이

* 금주: 안중근집사, 국은희집사

* 내주: 김진수, 김진우

모임안내

새가족 성경공부

구분	시간	담당자	기간	장소
새가족반	2, 3부 예배 후	오상옥 목사	4주	공부/ 당회실 만남/ 목양실

평신도 신앙훈련

구분	내용	기간	사역목표	담당자	
새가족양육	새가족반	4주	새가족 필수 과정	오상옥 목사	
	학습·세례준비반	3주	신앙 교육 강화	담당자	
신앙성장과정	교리생활공부	1년	1학기: 교리편 2학기: 생활편	담임 목사	
	가정사역학교	13주	행복한 가정 만들기	김혜경 사모	
	제자훈련	제자반	1년	그리스도의 제자양육	교구 목사
		사역반	1년	사역자 양육	담임 목사
	목자훈련	매주	목자훈련	각교구 교역자	
	양육 1단계		5주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 경험하기	담당자
		회복수양회	1박2일	내적치유	담당자
	양육 2단계		8주	성숙한 성도의 삶 경험하기	담임 목사
		중보기도학교	6주	기도 헌신자 훈련	담당자
	바나바학교	4주	새가족 양육자 훈련	담당자	
L M T C	평신도 선교훈련	24주	단기선교 준비 과정	담당자	
청춘대학	다양한 교육활동	4년	노년의 행복한 삶	조정옥 전도사	
아기학교	주간 아기 교육	12주	신앙적인 전인교육	김명순 전도사	

찬양대

구분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주일새벽 주일 1부	시온	이중운	김예원
주일 2부	예루살렘	이규인	피/ 임지희 오/ 문정애
주일 3부	할렐루야	장지이	피/ 김영미 오/ 임형선

구분	반주자
주일새벽	이성희 김경희
주일오후	강주연
수요 1부	문정애
수요 2부	김경희

3월 행사 안내

--	--

코로나19 전염방지를 위한 협조의 말씀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신천지 사태로 인해 대전에도 확진자가 발생하여 대전 역시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교우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회생활 지침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당 입장 시에
 - (1) 마스크는 의무적으로 꼭 착용해주시고,
 - (2) 1층 로비에서 손 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도들과의 인사는 악수가 아닌 목례로 해주시고, 기침시에는 옷깃으로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 당분간 주일에는 교회중식과 카페운영을 중단하며, 주중에는 목장 모임을 중단합니다.
- 당분간 화장실쪽 출입구는 사용을 중지하오니, 1층 현관 로비로 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분간 성도님 외의 새로운 분들의 출입을 금합니다.
- 최근 14일 이내에 해외에 출타를 하였거나 호흡기 증상과 발열이 있는 분들은 예배당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 주일 말씀으로 은혜받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교회는 주 1회 토요일마다 각 예배실과 교육시설, 그리고 모든 시설에 소독과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우들께서도 안전한 교회생활과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마음을 모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 기회에 시편 91:1~7을 암송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선교 및 돕는 기관

♣ 파송선교사

- 김정배, 이명국(재현, 은희, 상희) / 태국 · 싱가포르
- 이종현 / 국내 몽골이주민 사역(부천)
- 윤명호, 최수옥(인아, 기웅) / 태국
- 조나단, 김은샘(예지, 혜성, 하라, 이안) / 인도네시아
- 버여, 총통체책 / 몽골
- 박춘국, 김은영(주현, 하현, 성현) / 일본
- 안덕준, 이안나(하민, 하진, 하은) / 베트남
- 김현숙 / 태국(2월 파송예정)

♣ 협력선교사 및 선교기관

- 천강민 / 몽골 · 장석현 / 태국 · 이수현 / 필리핀
- 김재정 / 태국 · 김도형 / 태국 · 장천득 / 캐나다
- 임태호 / 태국 · 박정선 / 태국 · 오세연 / 남아공
- 이성울 / 키르기스스탄 · 총회세계선교회(GMS)
- 산띠팍선교회(SMI) · 일본아가페선교회(AMJ)

♣ 후원교회 및 기관

- 세종중부교회 · 기독교임즈
- 가야곡중부교회 · 총신대학교
- 옥천각계교회 · 대전신학교
- 대전시기독교연합회 · 동대전중학교
- 대전성시화운동본부 · 가양중학교
- 두란노아버지학교 · 명석고등학교
- 군선교연합회 · 내홍릉 노인회
- 주바라기선교회 · 가양2동 노인회
- 대전기독교방송 · 신도 노인회
- 대전극동방송 · 더퍼리 노인회
- 대전극동방송 · 비래1,2 노인회
- 대전CTS방송 · 내봉 남,녀 노인회

지난 주 말씀 요약

전염병으로 인해 두려움이 생길 때(시91:1-7)

설교 조상용 담임목사

코로나19 전염병이 전 세계를 위협하며 지금 우리가 사는 대전 또한 방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더욱이 이번 전염병으로 인해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고 문을 닫아야만 하는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해하고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믿음이 흔들리는 일까지도 벌어지고 있다. 과연 전염병이 퍼져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1.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견고히 합시다.

(1-2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 가지 재앙과 전염병으로 위급한 때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한다. 그래서 전염병에 걸릴 것인가, 안 걸릴 것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모든 고난이 그렇지만, 전염병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든다.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피난처요, 요새로 삼고, 그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재앙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은혜)을 구하는 것이다. 그럴때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기에 이 땅에 소망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2. 서로서로 믿음의 말로 격려합시다.

(3-4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하나님의 심판이니 저주라느니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 주권에 속한 것이기에, 사람이 항부로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항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 오늘 시인처럼 불안에 떨면서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믿음의 말로 붙들어야 한다. 이웃이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그들에게 위로의 말은 못해줄망정,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말 한 마디는 매우 중요하다. 믿음의 말로 서로 격려하자.

3. 담대한 태도로 해야 할 일을 합시다.

(5-7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 명이 네 왼쪽에서, 만 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밤에도 낮에도, 어두울 때에도 밝을 때에도, 하루 24시간 어디서든지 조금도 위축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다. 이처럼 상황이 어려울수록 일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 역시, 코로나19 전염병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이때에 온 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는 고마운 분들이 많이 있다. 지금 이들의 희생이 지금 우리사회를 지탱해 주고 있다.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감염예방에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넘어 지역주민들과 나라 전체와 다른 국가들의 안위와 안녕을, 진정 자신의 안위만큼 걱정하고 힘을 다해 서로 도와야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개인새벽예배 묵상집

6일(금)	찬 412장	고후 7:2-16	구원에 이르는 회개
--------------	---------------	------------------	-------------------

작은 일에도 낙심하며 두려움에 빠지는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는 때로 절망합니다. 허나 바울 같은 신앙의 거장도 사역 중에 때로는 낙심하고(6절) 두려움을 느꼈다는 사실(5절)은 우리에게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고통 중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는 바울을 보며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의 종들을 상심한 채로 버려두시지 않고 반드시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위로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않았던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낙심하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7일(토)	찬 213장	고후 8:1-15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	---------------	------------------	-------------------------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나 교회들에 주신 은혜를 전하며,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연보(헌금)에 대해 권면합니다. 마게도나 교회들은 많은 고난과 극심한 가난을 겪으면서도 능력 이상으로 연보하는 데 헌신했습니다(2~3절). 이는 마게도나 지역 성도들에게 넘치는 기쁨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5절). 사실 고린도교회는 이미 일 년 전에 예루살렘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시작했습니다(10절, 참조 고전 16:2~3). 이 연보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 사역에 동참해 감사와 찬송을 올리게 위함이며, 둘째는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 간에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바울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을 섬기신 것처럼, 고린도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섬김을 아는 자로서 다른 형제를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기를 바랐습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의 권면대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물질로 다른 형제를 섬기며 주님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8일(주일)	찬 50장	고후 8:16-24	선한 일을 조심하려 함이라
---------------	--------------	-------------------	-----------------------

당시 바울은 거짓 사도들에 의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준답시고 돈을 모금해 실제로 그 돈을 그 곳에다 전달하기는커녕 자기 주머니에 넣어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라는 중상모략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신이 보낸 사람들의 인격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여 줌으로 자신의 사역의 진실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보낸 사람들은 사역에 있어서 온 교회의 칭찬을 받아 선택된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돈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과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비판이나 훼방을 받지 않도록 정직하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헌금을 다루어 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예물

십 일 조

강은자 강희주(김종분) 공종호 김경덕(이수진a) 김동춘(유덕자,김은지) 김명순 김상복(이선미) 김영미 김영채(이자영) 김영희 김용기(정윤옥) 김정순c 김정임 김충규(박순자b) 남궁예순 남민우(이현선) 노정남(조정옥) 도소재 류순례(김병출) 박건희 박순병(유승숙,박재상) 박영만(임형숙) 박옥자 배정만 손정숙 송경호(김옥희a) 송낙수(송정숙) 송봉우 신근목(이남희) 안영세(한혜숙) 안철호(이영숙a) 양주선(정태옥) 유명삼(권민숙) 유창웅(김정식) 유현아 유화자 육기례 윤명심(이상규) 윤종명(전숙인) 이길천(윤석의) 이신순(서정자) 이영학(김성순) 이용정 이울성 이은희 이재균(김현진) 이정학(최정은) 이창익 이춘권(김연자) 임영숙 정경희 정윤식(손석남) 정태응(윤정옥) 정희성(김윤정) 조규연(서정순b) 진재주(박향숙) 진정숙 최남철(손순이) 하숙희 하용호(문희정) 한순옥 한영희 현기훈(김은경,현오주) 홍근성(김동선) 황경숙 황덕순(김기환) 무명

감사헌금

고윤설(박혜란) 권혁주(박선미) 김연수 김영자d 김영천(남정혜) 김재순 김태순 김혜자 남민우(이현선) 문영화 박영만 양명자 유은정 이신순(서정자) 전기숙 전상순 정기조(이종옥) 정희성(김윤정) 조상용(김혜경) 조성일 채기병 한일민 (주)정화탁구선교회 무명5

선교헌금

강병우 강희주(김종분,윤상희) 김명순 김봉임 김영채(이자영) 김용기(정윤옥) 김정임 김중훈(송순현) 김충규(박순자) 남궁예순 도소재 류순례 박건희 박영만(임형숙) 배정만 손석남 송경호(김옥희) 송낙수(송정숙,송태준,송태양) 송봉우 신근목(이남희,신준영,신원영,박계숙) 안영세(한혜숙) 양갑진 유창웅(김정식) 유현아(유시후) 유화자 윤상덕(양길용) 윤인애 윤종명(전숙인) 이관희 이래민 이신순(서정자) 이용정 이울성 이은희a 이재균(김현진) 이정학(최정은,이예분) 이춘권(김연자) 임영숙 정태옥 정태응(윤정옥) 정하민 정하영 정희성(김윤정) 진재주(박향숙) 진정숙(권문수) 최민지(최재민) 최윤희 하숙희 하용호(문희정) 한순옥b 현기훈(김은경,현오주) 홍근성(김동선,홍은표,홍승표) 황경숙 5남전도회

신년축복부흥회헌금

박건희

교회사랑천사헌금

김용기(정윤옥)

장학헌금

왕은식

장학금 후원계좌: 301-0072-3936-51 (농협-대전중부교회)

개인새벽예배 묵상집

2일(월)	찬 235장	고후 4:16-5:10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	---------------	---------------------	------------------------

바울은 자신이 육체적 고난과 죽음의 위기라는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겉 사람은 낡아지지만, 보이지 않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4:16). 또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해 잠시 받는 환난이 가볍기 때문입니다(4:17~18). 나아가 현실 속 장막인 육신이 무너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에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5:1).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돼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땅의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영원한 하늘의 영광에 주목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5:7).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표가 돼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기를 작정한다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영원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내 가치 판단의 기준은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있습니까?

3일(화)	찬 325장	고후 5:11-21	화목하게 하는 직분
--------------	---------------	-------------------	-------------------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야말로 삶의 동기이자 원동력이 된다고 고백합니다(14절).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보여 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15절). 이처럼 삶의 동기와 원동력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인 기준과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16절). 육신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는 믿는 자를 부요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해야 했던 이유도,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21절). 결국 이 놀라운 은혜를 이해하려면 세상적 관점은 버리고, 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을 인지해야 합니다(17절). 과거에 중요시했던 세상적 가치를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의 삶에 대해 묵상하기 바랍니다(참조 갈 6:14; 빌 3:8).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개인새벽예배 묵상집

4일(수)	찬 310장	고후 6:1-13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마음
--------------	---------------	------------------	----------------------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1절), '하나님의 일꾼'(4절)으로서 영광스러운 직분을 위해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기꺼이 감내했습니다.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비방이나 걸림돌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3~8a절). 사실 그들은 속이는 자 같고, 이름 없는 자 같으며,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며, 근심하는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일꾼으로서 참되고 기뻐하며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8b~10절). 그들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참조 골 2:2b~3).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상황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참조 빌 4:12b~13). 나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소유한 자로서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주어진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5일(목)	찬 420장	고후 6:14-7:1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	---------------	--------------------	---------------------

신명기 22장 10절은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씌우지 말 것을 명하고 있는데, 아마도 바울은 이러한 이미지를 떠올리며 성도들이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듯합니다. 성도와 믿지 않는 자는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관계와 같이 결코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관계도 맺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는 주 안에서의 하나 됨과 같은 풍성한 영적 교제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지혜와, 또한 그들에게 만연한 우상숭배 문화를 단호히 거절할 줄 아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언약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깊은 이해, 그 깨달음에서 비롯된 구별됨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